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26  
2015. January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부산과 부산인에 대해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산의 관광인으로 거듭 나갈 바랍니다.

2015년 1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이, 상하이, 셴양, 우저우, 댜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키타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카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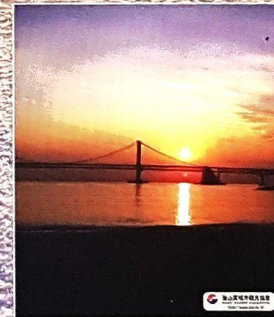
www.aptpo.org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Contents 2015. January Vol.26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평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우용 기자)  
발행일 2015년 1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관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i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roon.kr



표지 - 2016 해돋이

- 04 중국 칭도(칭다오) 관광 설명회 개최
- 05 중국 산둥성 여행 설명회
- 06 중국 연대시 여유국 부산사관광협회 방문
- 07 2015년 주요축제 행사일정
- 08 지난해 부산최고 히트 상품 '국제영화제·물꽃축제'
- 09 산북도로 상산투어버스 운행횟수, 체험 프로그램 확대
- 10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명품관광단지 지정
- 11 부산역 '국내 최대 문화광장'으로 조성
- 12 영화 국제시장, 이야기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든다
- 13 김해공항 이용객 1천만명, 동남권 중심 공항으로
- 14 부산발전연구원, 해운대해수욕장 피라슬 줄이고 문화체험 공간 늘려야
- 15 산북도로 누비는 '이바구 자전거' 새 명물로 등장
- 16 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아우르든 월드컵이 살아나
- 17 불행 재개발 사업지구엔 세계수준 미려비지널 본격 추진
- 18 부산관광공사, 부산항 크루즈 네트워크 발족식 개최
- 19 부산시 2016 부산의동관광주요정책 설명회 개최
- 20 백승호 총합 20주년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키로
- 21 부산관광공사 '주최화사형 풍기암 전환 검토'
- 22 부산지역 관광업계, 일본관광객 유치 적극 나서기로
- 23 올해부터 '별 호텔등급제도' 시행
- 24 한국관광공사 해외서 긴급상황발생시 안전리스크 가이드 발간
- 25 부산시, MIC 성장동력 지원계획 발표
- 26 자갈치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특산물상징관광 개발
- 27 부산시 원디버스타게팅 도입위한 검토 착수
- 28 코모도호텔 부산점 특급 승격
- 30 부산시 '리뷰어버스'
- 32 부산의 숙박
- 33 문화체험, 부산의 독특한 문화자원
- 34 관광열차타고 정동진 해맞이 레저는 문화관광객 유치
- 36 겨울여행, 청사포출렁계곡 그곳이 부산
- 40 문화갈림길, 한 일수교 60주년, 부산사공예가 버리는 부산의 관광질서

## 중국 청도(칭다오) 관광 설명회 개최



2015년 '중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22일 시내 코모도 호텔에서 서 관광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관광설명회는 청도(칭다오) 여유국 양씨권(양석군)부국장을 비롯한 일행 10여명, 국내여행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청도 양도시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날 최석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청도 여유국과 부산시관광협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15주년을 자축하고 앞으로 양도시간의 우호증진과 관광교류를 촉진하자"고 말했다.

또 양씨권 청도 여유국 부국장은 "우리 청도는 바다와 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수관광도시로 레저휴양, 유람관광, 해상관광, 축제관광, 스포츠문화관광을 바탕으로 한 다원화된 관광제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 청도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동서양 문화가 조화된 도시경관이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도시인 만큼 부산에서 많은 관광객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중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변레저 휴양관광도시 청도는 730여 km의 해안선, 50개의 항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8월이면 열리는 청도맥주축제는 중국의 카니발이라 할 정도로 세계 맥주 애호가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행사이며 노산 또한 도교성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편집자



## 중국 산둥성 여행 설명회



"위동페리는 안전한 선박여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동페리와 함께하는 중국 산둥성 여행 설명회가 28일 시내 코모도 호텔에서 여행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위동페리는 바다에 떠있는 또다른 호텔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최근호를 수순의 소위트룸에서 단체여행자를 위한 저렴한 객실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했다.

인천-청도(주3회) 매주 화·토 17:30분 목 19:00 출발

청도-인천(주3회) 매주 월·수·금 17:30분 출발

위동항운 유한공사 김동철 부장은 "산둥인은 호방하고 열정적이며 손님을 반긴다. 또한 순박한 민풍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현지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여러분의 여정을 경쾌하고 즐거운 여행으로 안내한다. 산둥의 관광서비스기능은 점점 완벽해지고 있다. 전 성에는 전국의 우수 관광도시 및 우수 현금 도시가 30여곳에 달하고 3A급 이상의 풍경구는 106곳에 달하며 공·농업관광시범지가 119곳에 달한다. 730곳에 달하는 성급 호텔이 있으며 1897개에 달하는 국제·국내여행사가 여러분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객산동 브랜드화 이미지의 영향하에 산둥의 관광업은 관광객에게 전문적이고 친절하며 개성적이고 세심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여행을 선사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편집자



## 중국 연태시여유국 부산시관광협회 방문, 양도시간 관광교류 돈독 강화 기원해



2014년 12월 10일(수) 중국 연태시여유국 일행이 부산시관광협회를 방문하였다. 부산시관광협회 강석환 부회장과 연태시여유국 부주임을 비롯한 일행은 양도시간의 미래 지향적인 교류관계와 함께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좋은 인연맺기를 원하였고, 또한 연태시여유국에서 “부산-연태” 직항 노선이 하루빨리 취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양도시간 관광교류가 한층 돈독하고 강화되기를 기원하였다.

## 부산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관광지는 해운대

지난해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해운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이 꼽은 시내 숙박여행지는 해운대구가 48.1%로 절반 가까이 됐고, 기장군(12.6%) 수영구(7.8%)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의 84.8%는 지난 1년간 부산여행 경험이 있고, 평균 횟수는 4.13회(숙박 0.09회, 당일 4.04회)였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은 기억에 남은 시내 여행지로는 해운대(22.3%) 태종대(12.6%) 광안리(6.7%) 이기대공원(6.7%) 등을 꼽았다.

부산여행을 위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60.8%로 절반을 넘었고, 시내버스(23.0%)와 도시철도(12.6%) 등 대중교통 이용자도 많았다. 부산을 여행하는데 사용한 경비는 횡단 평균 3만9700원이었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해운대(27.6%), 바다(10.3%), 광안대교와 불꽃축제를 포함한 광안리(9.9%), 태종대(9.7%), 자갈치(9.7%)가 1~5위를 차지

했다. 반면 지난해 각각 6, 7위를 기록했던 부산국제영화제와 롯데아구는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도개교 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도, 회·해산물은 새롭게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부산관광의 가장 큰 문제로는 주차난(20.1%), 볼거리와 즐길거리(14.7%), 도로 혼잡 등 접근성 부족(13.0%)이 지적됐다. 시민은 또 부산관광 발전을 위해 자연·생태자원 활성화(22.1%), 청결한 도심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19.5%), 유원지와 놀이공원, 종합레저시설 육성·개발(13.7%)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시민의 발길이 잦았던 국내 여행지는 경남(21.9%)이 1위였고, 나머지는 경북(15.0%) 제주(12.7%) 등이었다. 해외 여행지는 중국(21.6%) 일본(21.3%) 태국(7.7%)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여행 만족도는 부산이 79.3점으로, 국내(81.1점)나 해외(80.4점)와 큰 차이가 없었다.



## 2015년, 바다축제·국제영화제·불꽃축제 등 국제행사 다양

부산은 2015년 새해에도 풍성하고 알찬 축제와 국제행사로 가득하다. 바다축제, 영화제, 불꽃축제 등 올해도 어김없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축제와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올 3월 해운대 벅스코에서는 미주개발은행(IB) 연차총회가 열려 MICE 도시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드높인다. 부산항축제·부산바다축제에서 ‘항구도시부산’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부산국제영화제·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등 대형 국제행사가 열리는 부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 전망이다.

### 2015년 주요 축제·행사 일정

월	행사명	일자	장소
3월	미주개발은행(IB) 연차총회	3.26~3.29	벅스코
	제33회 부산연극제	3.27~4.12	부산문화회관
	제11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3.26~3.29	벅스코
4월	제14회 부산과학축전	4.18~4.19	공리마루
	제3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4.24~4.28	영화의전당 등
	제7회 부산시민자전거 축전	4.26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4.29~5.10	부산문화회관
	제4회 부산 낙동강유채꽃 축제	4월 중	대저생태공원
5월	조선통신사 축제	5.1~5.3	광복로 일원
	부산콘텐츠마켓(BCM) 2015	5.7~5.9	벅스코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5.29~6.2	부산문화회관
	제8회 부산항 축제	5.29~5.31	동산혁신지구 일원
	부산 슈퍼컴 국제 요트대회	5월 중	수영만 요트경기장
	제1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5월 말	벅스코
6월	2015 부산 갯소포 축제	6월 초	낙동강, 수영강
	아트쇼 부산 2015	6.4~6.8	벅스코
	투르 드 코리아 2015 대회	6.6	미정
	제24회 부산무용제	6.13~6.16	부산문화회관
	2015 부산국제크루즈 행사	6월 중	벅스코 등
7월	제7회 부산광역시장애인 국제서명대회	*	해운대해수욕장
	2015 부산국제화노화 엑스포	*	벅스코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7.2	부산문화회관
	제1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7.23~7.28	영화의전당 등
	제41회 부산미술대전	7~8월 중	부산시립미술관 등
8월	부산마린스포츠 2015	*	부산지역 해수욕장 등
	제20회 부산바다축제	8.1~8.7	해운대해수욕장 등
	제10회 부산국제메직페스티벌	8.6~8.9	*
	2015 IUPAO국제수송유통학회연례 총회	8.6~8.14	벅스코
	제16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8.7~8.9	삼락생태공원
9월	2015 부산국제광고제	8.20~8.22	벅스코
	2015 부산 MICE 페스티벌	8월 말	벅스코 등
	제3회 부산국제음료포럼	9.3~9.4	벅스코
9월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9.4~9.11	부산문화회관
	제18회 부산국제관광컨전	9.11~9.14	벅스코
	201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9.11~9.13	*
10월	제33회 부산무용콩쿠르	9.13	부산문화회관
	코리아오픈 부산 국제 드래곤보트대회	9월 중	수영만 일원
	IT EXPO BUSAN 2015	*	벅스코
	제9회 세계해양포럼	*	미정
	2015 바다미술제	9~10월 중	송도해수욕장
10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10.1~10.10	영화의전당 등
	제36회 부산시민의날	10.5	시청대강당
	제26회 부산생활체육축전	10.3~10.4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제5회 부산국제콜로키엄 영화산업포럼	10.3~10.6	벅스코
	2015 아시아 송 페스티벌	10.9	아시아드주경기장
11월	2015 부산국제합창제	10.14~10.17	부산문화회관
	2015 부산예술제	10.14~10.25	부산문화회관 등
	2015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전	10.20~10.23	벅스코
	제70회 UN의 날 기념식	10.23	유엔기념공원
	제11회 부산불꽃축제	10.23~10.24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11월	제22회 부산국악대전	10월 중	시민회관
	부산컴 세계여객선대회	*	해운대 동백성일원
	제24회 부산 자갈치축제	*	자갈치시장
	2015 부산국제음악박람회	*	벅스코
	2015 부산국제신발공업박람회	11.5~11.7	*
11월	제13회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11.12~11.14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G★ 2015	11.12~11.15	*
	제35회 부산미술제	11.15~11.19	부산문화회관
12월	제7회 부산트리문화 축제	11.28~12.13	광복로 일원
	제11회 부산국제환경친화도시엑스포	11월 중	영화의전당 등
	부산국제금융박람회	*	벅스코
2015 시민의 날 기념식	12.31	영도산공원	

# 지난해 부산최고 히트상품 '국제영화제·불꽃축제' 선정돼

## 2014 부산 10대 히트상품

- ① 부산국제영화제 · 불꽃축제 ② 부산시민공원 · 송상현광장 개장 ③ 삼진어묵 ④ 설빙 ⑤ 부산항대교개통
- ⑥ 부평강통시장 ⑦ ITU전권회의 ⑧ 부산시티투어버스 ⑨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⑩ C1블루

지난해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 히트상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가 뽑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상품·시책·인물·건축물 등에 대한 전문가 추천, 지역 언론사 키워드 검색, 선정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2014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을 선정했다. 히트상품을 통해 본 올해 부산 키워드는 '살의 질 향상', '글로벌 도시 가속화', '토종의 힘 발휘'라고 밝혔다.

### 부산국제영화제·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불꽃축제가 2014년 부산 히트상품 1위에 이름이 올랐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BIFF는 부산이 아시아 처음으로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불꽃축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성장했다는 평가 속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우뚝 섰다.

### 부산시민공원·송상현광장 개장

부산시민공원은 개장 100일 만에 430만명이 다녀갔고 하루평균 4만여명이 찾는 도심 쉼터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6월 12일 개장한 송상현광장은 서울 광화문광장 보다 두 배 가까이 큰 전국 도심광장 중 최대 규모다.

이밖에도 1953년 부산 영도에서 영업을 시작한 삼진어묵, '코리아 디저트카페'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설빙', 부산항대교 개통, 전국 최초의 아시아인 '부평강통시장', '2014ITU 전권회의'를 비롯해 부산 관광명소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부산시티투어버스', 동북아 금융하브의 상징 '부산국제금융센터', 향토 술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C1블루'가 히트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희영 기자

# 산복도로 상상투어버스 운행횟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부산 산복도로 투어버스가 올해부터 '산복도로 상상투어버스'로 이름을 바꾸고 운행 횟수와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는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부산 산복도로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원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복도로 투어버스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인승 버스 1대로 관광객이 몰리는 토요일 3회, 일요일 2회 운행하는 것을, 버스를 3대로 늘린다. 운행 횟수도 토요일 7회, 일요일 6회로 늘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투어 코스 역시 확대한다. 각종 체험투어 코스를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역사·문화투어 2개 코스를 추가한다. 야경투어는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새롭게 꾸민다.

## 산복도로 상상투어버스 운행 코스

운행코스	운행일시	체험·공연 프로그램	주요 경유지 (소요시간 : 2시간~2시간 30분)
체험투어 (A-D코스)	A코스(토) (10시, 14시)	천연염색	마시코전망대, 오색빛갈행복마을, 유치환의 유체통
	B코스(토) (10시, 14시)	비즈공예	매죽지마을, 까꼬막카페, 한미은행복센터
	C코스(일) (10시, 14시)	바리스타	금수현의 음악살롱, 닥밭골카페, 서구 꽃마을
	D코스(일) (10시, 14시)	떡 만들기	역사의 디오라마, 신리회관, 비석마을
역사 문화 투어	영도 흰여울마을	토, 일 10시	근대역사관, 흰여울마을, 한미은행복센터(영도대교 도개 관람), 비석마을
	김천문화마을	토, 일 14시	임시수도기념관, 서구 꽃마을, 김천문화마을
야경투어	토 18시	클래식 음악회, 버스킹 공연	까꼬막카페, 유치환의 유체통, 금수현의 음악살롱

이에 따라 부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임시수도기념관과 근대역사관, 김천문화마을, 영화 '변호인'에 등장해 해안절경 마을로 큰 주목을 받았던 영도 흰여울마을 등을 '산복도로 상상투어버스'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투어코스가 늘면서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해진다. 기존 천연염색 체험(오색빛갈 행복마을) 뿐만 아니라 비즈공예 체험(까꼬막카페), 떡 만들기 체험(산리회관), 바리스타 체험(닥밭골 행복마을) 같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경코스의 경우 클래식 음악회(금수현의 음악살롱)와 버스킹공연(까꼬막카페)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을 선사한다.

'산복도로 상상투어버스'는 한번에 18명이 탑승할 수 있다. 탑승 신청은 '부산 마을 협동경제플랫폼 홈페이지(www.woorimaoul.or.kr)'와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출발지인 부산역광장에서 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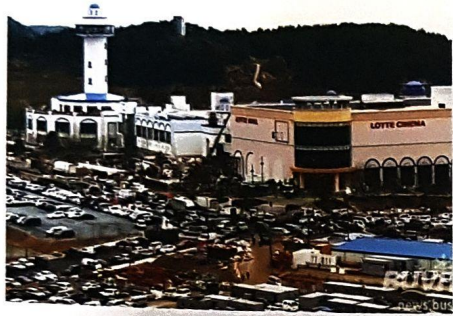
# 부산시,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우수상' 수상 산복도로 르네상스·마이스·영화영상 등 도시브랜드 높게 평가

부산시가 제16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창조도시브랜드 경영기법을 도입,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관리를 해왔다. 특히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시책을 추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수상기관에 뽑혔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창조도시 재생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산복도로 르네

상스 사업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화·영상 특성화 사업 등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명품관광단지로 변신중

롯데몰 동부산점 개장에 이어 힐튼부산호텔, 아난티펜트하우스,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아쿠아월드 등 공사도 진행 중



▲ 동부산관광단지는 최근 쇼핑·레포츠시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가 관광·쇼핑·휴양기능을 고루 갖춘 사계절 명품 관광단지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해 12월 23일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 아웃렛인 '롯데몰 동부산점'을 개장하면서 쇼핑·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가장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55m높이의 동대전망대는 13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국적 분위기의 분수광장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시설도 갖춰 가족이 함께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롯데몰 동부산점' 개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관광·쇼핑·휴양시설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 위용을 갖추면 세계에 자랑할, 세계인이 사랑할 명품 관광단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롯데몰 동부산점 바로 맞은편 해변에 공사 중인 '힐튼 부산 호텔'과 '아난티 펜트하우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해 2017년 준공 예정이다. '바다 위의 성'이 콘셉트인 6성급 '힐튼부산 호텔'은 객실 306개 규모, 기존 특급호텔보다

2배 이상 넓은 56㎡ 스위트룸 객실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춘다. 353㎡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90채로 이뤄질 '아난티 펜트하우스'는 계단식 건물로, 모든 객실의 야외 테라스에서 눈부신 부산 바다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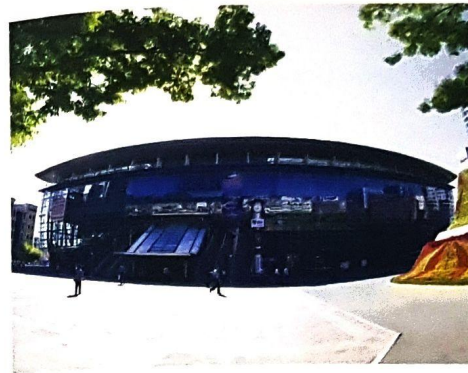
'힐튼부산 호텔' 공사현장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 대변항 인근에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해운대비치CC)'가 시원하게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문을 연 이곳은 18홀 규모의 골프장. 해운대비치CC는 전체 6천629㎡ 길이의 18홀을 갖추고 있으며, 12개 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절경을 자랑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월드'도 올해 공사에 들어가 내년 개장한다. 싱가포르 자본인 (주)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Goldsea Korea Investment : GKI)가 1천296억원을 투자하는 '아쿠아월드'는 현재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국내 최대 해양수족관, 아시아 최초 인공 '바다호수' 형태의 돌고래 생태체험관, 레저던스호텔 등을 갖춘 예정이다.

이효영 기자

## 부산역 '국내 최대 문화광장'으로 조성

광장의 활성화가 초량동 등 원도심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



하보행통로 출입구가 광장의 중앙에 위치해 광장의 기능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중앙로 건너편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만들어 광장과 지하보행로로 물리는 승객들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보행로는 광장호텔 쪽 택시승강장 위쪽에 들어설 창조지식터미널 옥상에 숲과 함께 설치된다. 중앙로 부분은 브릿지로 건너편과 연결해 도로로 인한 광장 단절이라는 단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또 부산역 광장의 활성화가 초량동 등 원도심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 현재 8m 폭의 횡단보도를 60m로 대폭 확장해 도로로 인한 원도심과 광장의 단절감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최근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역을 국내 최대 문화광장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우선 역사 앞에 설치돼 있는 2층 진입 계단과 에스컬레이트를 철거하고, 현재 공사중인 지하보행 통로를 1층 출입구까지로 연장시켜 광장기능을 회복키로 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트가 철거되면 광장은 역사쪽으로 30m 가량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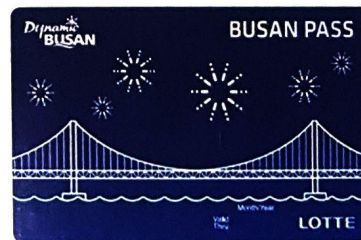
시의 이같은 결정은 도시철도와 KTX 부산역을 연결하는 지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자유치 하늘 데크와 창조지식 터미널, 민자 호텔, 복합과 부산역 연결 보행 데크 등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500억 원 예산을 포함해 각종 데크와 호텔, 창조경제혁신센터 분관 등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돼 모두 2천952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이 진행된다"며 "최종 보고서가 나온 만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민자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웅 기자

## 전국 최초로 '후불식 관광카드' 출시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나 숙박·식음료 업소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관광카드가 출시됐다. 부산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롯데카드와 함께 '부산관광카드'를 출시했다. 후불식 관광카드로는 부산관광카드가 전국 최초다.

부산관광카드는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등의 관광안내소에서 살 수 있다. 판매소에서 구입한 뒤 자유롭게 사용하고 후불 정산하는 방식이다.

부산관광카드를 사용하면 해운대 아쿠아리움 등 부산지역 주요 관광·숙박·식음료 업소에서 5~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받는다.

# 영화 국제시장, 이야기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든다

## 부산지역 호텔업계, '국제시장 관광야외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키로



▲ 부산이 영화 '국제시장' 흥행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제시장을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가 영화 흥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시장을 '반짝스타'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영화 '국제시장' 촬영지를 스토리텔러인 '이야기 할배·할매'가 안내하는 국제시장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 남포동 부산종합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 남포시거리-BIFF광장-역자골목-'꽃분이네'가게-부평깡통시장-용두산공원을 2시간 가량 걸어서 둘러보는 코스다.

부산의 개항기부터 6.25전쟁 피란시설, 격동의 현대사까지 영화처럼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들이 코스 곳곳에 숨어 있다. 국제시장 일대 들르는 곳마다 입담 좋은 '이야기 할배·할매'가 각 장소에 얽혀 있는 역사와 사연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국제시장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 출발한다. 평일

에도 신청자가 10명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출발한다. 신청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bto.or.kr)로 하면 된다.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앞으로 국제시장을 '팔도장터 관광 열차' 대상 시장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 관광열차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객에게 열차 운임비 일부와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시장투어를 인근 영도대교 도개 관람과 함께 부산의 대표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해 영화 촬영지 등을 안내하는 통합 표지판 설치 등 관광상품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호텔업계도 영화에 소개된 국제시장 일대를 둘러보는 '국제시장 관광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웨스턴조선호텔은 국제시장과 용두산 공원, 부평깡통시장, 광복동 패션거리 등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인 '골목대장'을 집중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역시 국제시장 관련 관광 상품인 '국제시장에 가다' 프로그램 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의 야외 엔터테인먼트 전담팀인 '레오(LEO) 액티비티'가 전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관광지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문객들에게 전해준다.

롯데호텔의 경우 부산지역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시장 패키지'를 지난달 26일 신설했다.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를 둘러볼 수 있게 마련된 이 패키지는 영화의 흥행과 함께 고객 수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효영 기자

# 김해공항 이용객 '1천만명, 동남권 중심 공항'으로

## 1일 평균 212편의 항공기와 2만8천600여 명의 여행객 이용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지난해 12월 연간 이용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 급증이 김해공항 이용객 상승세를 견인했다.

김해공항 이용객의 급증세는 지역항공사 에어부산 설립, 국내외 저비용항공사(LCC) 취항 확대, 신규 국제노선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올해 하반기에만 예지, 장지제, 스좌장 등

중국 노선 신규 취항과 후쿠오카, 타이베이, 가오슝 등 기존 국제선 증편이 잇따라 이용객 증가세에 힘을 보탤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1천만명 시대를 열어 하루 평균 212편의 항공기와 2만8천600여명의 여행객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 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과 인천공항 중심의 원포트(One-port)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연간 이용객 1천만명'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서 예측한 2020년보다 6년이나 앞당겨 이용객 1천만명을 달성,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해공항 국제선 수용능력이 464만명에 불과해 한계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동남권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항정책담당관은 "동남권 항공수요의 중심 공항인 김해공항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국제선 여객을 처리하는 제2의 관문공항"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국제노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김해공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가덕 신공항, 민간자본 유치해 본격 착수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입지선정)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덕 신공항 건설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일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것이다. 서 시장은 투자자 구성이나 운영방식까지 21세기를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항을 만들어 낼 자신이 있다며,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2027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사업 추진 로드맵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올해는 가덕 신공항 건설의 중요한 분기점

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도 이를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민자 유치를 통한 독자적인 가덕 신공항 건설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 영화 '국제시장' 촬영코스 관광상품으로 개발

부산관광공사는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국제시장을 비롯한 부산의 원도심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시장 투어를 기존 원도심 골목 투어와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러인 '이야기 할배·할매'들이 국제시장에 얽힌 역사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형성한 국제시장의 역사와

영화 속 일화를 할배, 할매들의 구수한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영화 촬영지를 관광 상품화한 사례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사측에서 안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영화와 관광의 도시, 부산의 부가가치 향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부산 중구·동구·영도구 아우르는 원도심이 살아나고 있다

영도대교, 자갈치축제, 부평깡통야시장, 산복도로 이바구길, 감천문화마을 찾는 관광객 몰려



▲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 실제 촬영지인 부산 국제시장 기계 '꽃본이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부산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갈치축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영도대교 도개기능 부활, 부평깡통야시장 야시장 등 다양한 문화·관광축제와 볼거리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것. 특히 7년 전 첫선을 보인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지난해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금상과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

2013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밤에 문을 연 부평깡통야시장 야시장 역시 개장 1여년 만에 동아시아의 주목받은 야시장으로

성장했다. 영도대교도 지난 2013년 11월 47년 만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도개기능을 부활, 1년 만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이색명소로 우뚝 섰다. 최근에는 부산 출신 유재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몰이를 하며, 영화의 배경인 부산 국제시장이 연일 몰려드는 인파로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영화 개봉 전 국제시장 방문객은 평일 기준으로 2만~3만여명 주말 4만~5만여명이었으나 최근에는 평일 4만~5만여명 주말 10만여명을 훌쩍 넘기며 2배 이상 늘어났다.

부산 산복도로도 여전히 국내외 관광객들의 인기를 누리며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시가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세계적 도시재생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은 지난해 75만여명을 불러들이며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부산의 근·현대사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 '이바구길' 역시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파른 비탈길을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3인승 전동 세발자전거를 '이바구 자전거'로 이름 붙여 운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두웅 기자



감천문화마을 ▶



## 북항 재개발 사업지구에 세계 수준 마리나시설 본격 추진

부산시민, 관광객 : 해양레저, 문화체험 기회 제공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구에 세계최고 수준의 마리나시설이 들어선다. 북항 재개발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시진은 북항에 들어설 마리나시설 조감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구에 세계최고 수준의 마리나시설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마리나사업을 제안한 싱가포르 SUTL글로벌사와 사업조건 협상을 마무리하고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SUTL은 65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까지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 마리나지구에 클럽하우스와 200척 규모 계류시설, 요트아카데미 등을 지어 35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BPA는 이 기간 마리나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생산·부가가치, 소득유발 등을 합해 2조2천억원, 고용창출은 취업 및 고용유발을 포함해 2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PA는 지난 2011년 SUTL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항만시설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3년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근 SUTL 측이 기존 BOT(시설 완공 후 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 채납하는 계약) 방식을 바꿔 부지임대 방식을 추진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BPA는 SUTL과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협의를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965년 설립된 SUTL글로벌사는 세계 11개국에 21개 마리나 클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09년과 2014년 베스트 아시아 마리나로 선정된 싱가포르 센트사삼의 'One 15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다. SUTL은 2020년 세계 3대요트 경주대회인 하나인 볼보오션레이스(Volvo Ocean Race)를 부산에 유치, 관광객 증대와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BPA 관계자는 "북항에 세계 수준의 마리나시설이 들어서면 만큼 북항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부산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웅 기자

## 지난해 부산항 이용 해외여행객 감소, 크루즈 이용 여행객은 증가

지난해 부산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는 감소, 크루즈 이용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5천여 명의 해외여행자가 부산항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152만5천여 명에 비해 약 3%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은 전년도 62만1천여 명보다 8% 증가한 66만 8천여 명, 내국인은 84만7천여 명으로 전년도 90만4천여 명에 비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는 대형 외국적 크루즈 관광선의 부산항 입항 증가 때문이고, 내국인 여행객 감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선박사고 이후 선박여행 기피 영향으로 풀이된다.

크루즈선박 입항은 110척으로 전년도 109척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여행자는 24만5천여 명으로 전년도 19만5천여 명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크루즈 네트워크 발족식 가져 동북아를 대표하는 크루즈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



▲ Busan Port Cruise Network(BCN) 발족식 (사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크루즈산업 관계업·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현안사안 및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항 크루즈 네트워크(Busan port Cruise Network) BCN의 발족식을 가졌다.

BCN은 유관기관 간에 개별 논의되고 있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방안, 크루즈 시설 확충 계획 등 부산항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모아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성된 협의체로서 부산시, 부산지방해양항공청 등 정부 및 지자체와 부산세관, 법무부출입국사무소, 검역소, 등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기관, RCI(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Princess Cruises 등 세계 주요 크루즈선사 대리점 등이 참석했다.

부산항 크루즈산업은 최근 2011년 42회 5만1331명 입항에서 올해 110회 24만4935명 입항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크루즈선 입항일에는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들로 해운대, 남포동과 같은 시내 주요 관광지가 북적이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5년 7월경 개장하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세계 최선의 선박 Quantum of the Seas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며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마쳤고,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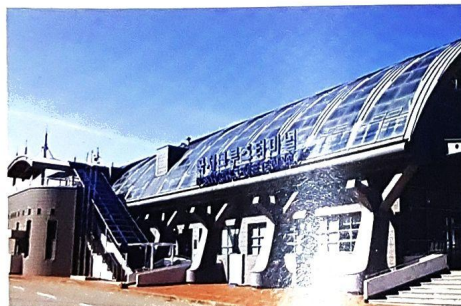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으로만 알려졌던 부산항을 이제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크루즈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Busan port Cruise Network가 그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무용 기자

##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에 홍보판촉관 문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근 영도에 있는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에 '한국수산식품 홍보판촉관'을 문 열었다.

홍보판촉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산 방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시가 인정한 '부산 명품수산물'인 김, 미역, 다시마, 명란 등을 비롯해 건강식품으로 호평받고 있는 건해삼, 전복, 가공 굴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전시·판매한다.



## 부산시, 2015 부산의료관광주요정책 설명회 개최 '2020년 아시아 3대 의료관광 도시로 성장' 목표

부산시는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 및 관련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시가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2015부산의료관광 정책' 수립 및 이를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관계자에 대한 부산시장의 격려인사 후 2015년도 의료관광정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부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 의료기관이 288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98개소가 있다. 시는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수준 및 인프라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해외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일선에서 부산홍보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주요 의료관광정책 설명과 함께 향후 부산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됐다.

시는 2015년도 의료관광 주요 정책사업으로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부산지역 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 △출산·산후조리·불임 해외환자 유치 등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국제인증 취득 확대 지원 △유치업자 인센티브 지원 △각종 해외 의료관광 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해 2015년 해외환자 유치 증대에 총력을 다해 부산을 '2020년 아시아 3대 의료관광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현재 의료관광업무를 올해 1월 1일자로 개 단위 조직에서 과 단위조직(의료산업과)으로 확대 개편해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개, 글로벌 홍보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 부산시, 지난해 12월 상하이서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 5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개발

부산시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최대 크루즈 모항인 상하이에서 지난해 12월 19~20일 '크루즈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부산시와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한국의료관광대전 in 상하이' 전시장 안에 '부산 크루즈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해외 크루즈 선사 관계자,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비롯해 2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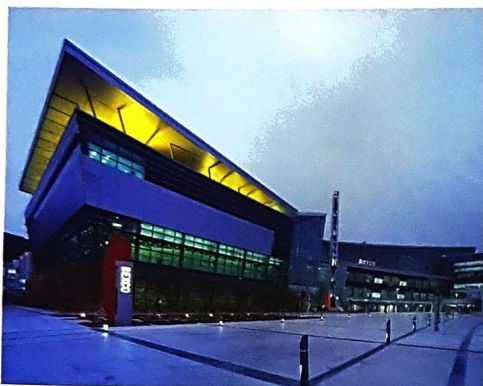
'한국의료관광대전 in 상하이'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해 전국 40여 개 의료기관, 지자체, 뷰티·웨딩·패션 업계가 참여하는 의료관광 및 뷰티 대규모 해외 프로모션 행사다.

이번 부산시 방문단은 부산시,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 5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기관이 참가, 전시회 기간 동안 '부산의료관광 상품 홍보', '크루즈 선사 및 전문여행사, 상하이 의료관광 에이전시와의 B2B 상담회', '뷰티 시연회' 등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또 중국 최대 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 크루즈 전문 여행사인 중국 동정여행사, 베이징키아사국제여행사 등과 부산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을 기항지 프로그램으로 판매하는 사항도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은 크루즈 여행객을 의료관광과 결합해 크루즈 의료관광 시장을 활짝 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벡스코 창립 20주년,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키로



벡스코(BEXCO)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경영 슬로건을 '2015년,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벡스코의 이 같은 시도는 단순한 외형적 성장을 넘어 부산 지역 마이스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벡스코 측은 설명했다.

벡스코는 이미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국제전기통신 연합(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비롯해 2년 연속 연간 1천 건이 넘는 행사를 개최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은 최근 국제협회연합(UA)의 세계 마이스 도시 평가에서 아시아 4위, 세계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벡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해 마이스 대표도시 부산의 위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 50개국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MIC) 연차총회를 비롯해 70개국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총회(UPAC), 레이저·광전자공학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가 벡스코에서 열린다. 2015 부산국제기계대전과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마린워크 2015 등 다수의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벡스코 관계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벡스코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관광 거점 될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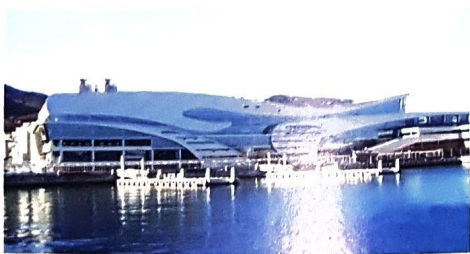
BPA(부산항만공사)는 동북해양거점이 될 국제여객터미널이 지난 2012년 7월에 착공, 2년 6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새 국제여객터미널은 BPA가 부산역 뒤쪽 기존 3·4부두 일원에 총사업비 2천343억 원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 동, 게이트 및 경비초소, 광웨이, 보세화물창고, 비가림시설, 근로자휴게소, 연세품인도장 등을 신축한 것으로, 연면적 9만3천㎡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간 이용객 27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힘차게 헤엄치는 고래와 역동적인 파도의 외형을 가졌는데, 해양수도 부산을 형상화한 것이다.

1층은 주차장과 수하물탁송장, 2층은 입국장, 3층은 출국장으로 2층과 3층에는 검역·입국심사·세관통관시설, 식당가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3층에는 대형 면세점이 들어선다. 4층은 입주업체 및 관련기관 등의 사무실, 5층

은 다목적 이벤트홀, 국제회의장이 배치됐다. 선박 접안 시설은 국제여객선 2만급 5선석, 500급 8선석과 크루즈선박 10만급 1선석 규모로,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이번에 준공된 새 국제여객터미널은 준공검사를 거쳐 CIQ기관 입주, 시범운행을 거쳐 오는 7월에 개장 될 예정이다. BPA관계자는 "새 터미널은 격조 높은 관문으로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 국제여객터미널

## 부산관광공사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 검토

에어부산, BS편투어 여행업협회, 호텔업협회, 벡스코, 관광협회 등 민간관광 관련 업계를 부산관광공사 주주로 참여시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

부산관광공사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에어부산과 BS편투어 여행업협회, 호텔업협회, 벡스코, 관광협회 등 민간 관광 관련 업계를 부산관광공사 주주로 참여시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관광공사는 2013년 1월, 기존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아르피나(유스호스텔), 시티투어버스 등을 흡수 통합한 관광 마케팅 전담기구 형태로 출범했다.

부산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0억원씩 현금 350억원과 현물 450억원(아르피나 건물과 토지) 등 모두 8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의 정제로 적자가 누적돼 시의 현금출자가 완료되는 2017년 이후 자본금 잠식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시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민간출자 공익추구형 공기업', 지분을 50% 미만으로 갖

는 '제3섹터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민간출자 공익추구형 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더불어 보장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섹터형 공기업은 수익성을 강조한 형태로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서울관광마케팅(주)를 제3섹터형 공기업의 대표적인 경우로 들 수 있다.

서울관광마케팅은 서울시 대행사업과 자체 수익사업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이를 보전한다. 서울관광마케팅에는 항공사, 호텔, 은행 등 16개 민간주주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자체 수익사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적자가 나면 현재로서는 시 출자금으로 메워야 한다.

시 측은 민간 관광업계를 주주로 참여시킴으로써 관광업계의 다양한 이해와 정책수요를 부산관광공사의 정책고객으로 반영하게 되면 부산관광공사의 경영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과 더불어 사업영역 조정 등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시, 관광진흥과+마이스산업과, 관광마이스과로

부산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관광진흥과와 마이스(MICE)산업과를 관광마이스과로 통합했다.

시는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던 관광진흥과의 관광마케팅담당과 마이스산업과의 전시마케팅담당이 관광마이스과 내의 관광홍보담당으로 개편, 조직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시행한 특별감

사에서도 마이스산업과와 부산관광공사의 마케팅업무 중첩 문제가 언급됐다. 당시 감사팀은 부산관광공사 산하 컨벤션뷰로팀이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고, 마이스산업과는 마이스 정책과 산업인력 육성 업무를 전담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관광진흥과와 마이스산업과를 하나로 합친 이번 조직 개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 부산지역 관광업계, 일본관광객 유치 적극나서기로

부산지역 관광업계는 여행사·항공사 간 긴밀한 협조로 일본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최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찾은 일본 관광객 수는 10월 기준 39만7천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1% 감소했다. 부산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의 감소세는 2년 연속 이어졌다. 2013년에도 51만7천



▲ 일본여행업협회 소속 여행사 임직원들에게 기념품과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 부산관광공사 제공)

산 팸투어(사전단시여행)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팸투어단은 두 차례 나눠서 부산을 방문해 관광코스 개발에 나서고 경남·울산 등 부산 인근 도시들도 둘러봤다. 부산관광공사는 팸투어 참가단의 부산 여행을 지원하고자 부산 홍보영상이 담긴 자료와 웰컴

카드 등을 전달했다. 또 부산지역 관광업계는 개별 자유여행시 필요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영 현수막을 내걸어 팸투어 참가단의 부산 방문을 환영했다.

한편 부산지역 관광업계들은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관광공사와 일본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라쿠텐, 에어부산은 일본 관광객 부산 유치를 골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부산관광공사와 에어부산은 라쿠텐이 일본 관광객 모집에 필요한 부산 관광콘텐츠 제공과 항공비 할인 등을 지원하고, 라쿠텐은 자체 매체와 회원 등을 활용해 비수기 부산 여행상품 판매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 명의 일본 관광객이 부산을 찾아 2012년 60만 명에 비해 13.9% 감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본 관광객 감소세는 원화 대비 엔화의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게 된 것이다.

시들해진 일본 내 한류의 인기도 관광객 감소에 한몫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험한 시위가 줄을 잇고 한류 콘텐츠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관광·문화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급감하는 일본 관광객의 발걸음을 다시 부산으로 돌리기 위해 부산지역 관광업계가 일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지역 관광업계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일본여행업협회 소속 여행사 임직원 200여 명이 부

## 올해부터 '별 호텔등급제도' 시행

### 무궁화 개수 따라 특1·2등급, 1·2·3등급을 5성, 4성, 3성, 2성, 1성급으로 변경

올해부터 '별 호텔등급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호텔 별등급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으로 승인받았다.

호텔 등급제도는 지난해 9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무궁화 등급제도에서 국제제 관례에 맞는 별 등급제도로 변경됐다. 등급평가도 종전에는 자율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관광공사로부터 등급을 결정받도록 의무화됐다.

그동안 무궁화 개수에 따라 특1·2등급, 1·2·3 등급으로 분류되던 호텔 등급이 앞으로는 5성, 4성, 3성, 2성, 1성급으로 변경된다. 국내호텔들은 올 연말까지는 무궁화 등급제도와 새로운 별 등급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016년부터는 별 등급제도만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호텔 등급제도가 시행되면서 평가기준과 방식도 바뀌었다. 평가 방식의 경우 사전에 평가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평가'와 통보없이 방문하는 '암행·불시 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한 호텔이 4~5성급 등급을

신청하면 무조건 1박 압행조사를 받게 된다. 1~3성급은 불시 평가가 진행된다. 무궁화 등급제도가 시설에 중점을 두고 등급을 평가했으나 별 등급제도에서는 서비스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압행 검사도 추가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호텔업 등급결정 개선 TF에 참여한 전문가, 호텔협회·관광협회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국내 호텔경영학과 설치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평가요원 101명을 선정했다.

4~5성급 호텔의 경우 한 호텔을 평가할 때마다 현장평가요원 3명, 압행평가요원 2명이 투입된다. 1~3성급 호텔은 현장평가요원 2명, 불시점검요원 1명이 나선다. 무궁화 등급제도에서는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데, 별등급제도에서는 각 등급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호텔 등급을 평가한다. 무궁화 등급제도와 별 등급제도의 차이 및 등급결정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은 호텔등급결정 홈페이지(hotelrat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여행 떠나기전 알림문자(SMS)서비스 꼭 가입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카드사(검열사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 실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피해신고 건수는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을 건수별로 보면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012건(2억5200만 원) ▷영국 163건(2억 1500만 원) ▷중국 152건(3억2000만 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 원) ▷태국 117건(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여행 중, 다녀온 이후 점검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여행을 떠나기 전 카드사가 제공하는 문자알림(SMS)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대부분의 카

드사가 '부정사용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가동 중이어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가 즉시 발송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알려야 한다. 신고는 전화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낯선 사람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서비스도 있다.

## 부산시 중국인 환승관광객 유치위해 환승관광 운영 적극지원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

부산시가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환승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승관광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한국이민재단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환승관광 활성화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내용은 한국이민재단이 운영하는 '환승관광 안내 도우미' 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금 제공으로 2013년 5월부터 한국이민재단에 연간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무비자 환승관광이 허용된 6개(인천, 김해, 양양, 청주, 무안, 대구) 국제공항 가운데 한국이민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은 부산시와 무안국제공항을 맡고 있는 전라남도 둘 뿐이다.

한국이민재단 관계자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환승관광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해공항을 통해 들어온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212명보다 35배 가까이 늘어난 7천419명이었다. 무비자 환승관광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도로 가면서 국내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시 관광마이스과 관계자는 "중국인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홍보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해외서 긴급상황발생시 안전그래픽 가이드 발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긴급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포켓판 팜플렛인 안전 그래픽 가이드 '터치 잇 페이퍼 3종(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을 새롭게 발간했다.

안전 그래픽 가이드는 '그림'과 '전보'가 합성인 픽토그램을 활용해 위치문의, 약국, 병원, 분실, 알레르기, 유아 동반, 호텔 이용 등 해외 여행시 11개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와 현지어를 병기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청바지 뒷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해 휴대성을 높였다.

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소비자 대상 사전 온라인 의견 조사 결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판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2014~15 한-러 상호 방문의 해'에 따라 러시아어판 제작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았던 바 있다. 또한 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 여행'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며 '터치 잇 페이퍼'의 모바일 앱 버전인 '저스트 터치 잇'을 리뉴얼해 올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

## 한국관광공사 여행시 꼭 지켜야 할 안전여행 지침서 발간

한국관광공사는 안전여행의 중요성과 여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초롱이와 함께 떠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라는 홍보만화책을 최근 발간했다. 초등학교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은 한국이네 가족이 말하는 강아지 '초롱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여행 시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았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관계자는 "즐거운 여행은 곧

안전한 여행"이라며 "안전여행 홍보만화책을 통해 안전여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여행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온전히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여행 홍보만화책은 전국 시·도별 교육청과 지자체 관광과,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되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이북(e-book)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외자유치 의식조사 실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외자유치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44.7%, 반대가 43.2%, '잘 모르겠다' 1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지노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관광수입 증가'(31.6%)가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21.5%), '도시 브랜드 제고'(13.4%), '세수 증가'(10.8%) 등의 순을 나타냈다.

부산 시민들은 카지노 유치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 '도박중

독에 따른 부작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35.9%)을 최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사행산업 관련 범죄 증가'(34.3%), '지역 이미지 악화'(14.3%) 등을 지적했다. 또 내국인 카지노 출입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물음에는 '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입제한'(29.6%), '일일 게임금액 제한'(24.6%), '연간 이용횟수 제한'(15.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과 6조 5천억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시, MICE성장동력 지원계획 발표 국제회의 기획업을 하는 업체가 신규로 개발한 국제회의 대상

부산시는 지역 마이스(MICE)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5년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 계획'과 '민간주관 국제회의 개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마이스 지원 정책의 특징은 기존의 대형화 전시회 기조에서 지역 마이스 업체와 신규 전시회 육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우선 '민간주관 전시회 지원'에는 5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지역업체 전시회에 배정했다. 또 경쟁력이 약한 지역 신생업체의 신규 전시회에 쿠폰을 정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지역 국제회의 업체 주·주관 '민간주관 국제회의'에도 4,000만원을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은 2개 분야로 나뉘어 지원한다. 제1분야는 전시회가 주업종인 부산지역 전시 사업자, 제

2분야는 다른 지역 전시 사업자와 공적(준공공적) 성격이 강한 전시 사업자이다.

지원금의 사용처도 업체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시 관련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국외 마케팅비를 제외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의 80% 이상을 지역 내 전시관련 업체에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민간주관 국제회의 개최지원 사업'은 부산에서 국제회의의 기획업을 하는 업체가 신규로 개발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발전 가능성과 규모 등에 따라 3개 안밖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들이 실질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 아시아 첫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지정 영화·문학·음악·공예·미디어아트·음식·디자인 등 7개분야

부산이 아시아 최초 '유네스코영화 창의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에서도 영국 브래드포드, 호주 시드니에 이어 3번째다.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지난 2004년부터 세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의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영화, 문화, 음악, 공예, 미디어아트, 음식, 디자인 등 7개 분야에 지금까지 41개 도시를 창의도시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부산의 영화 창의도시 지정에 대해 8개월에 걸쳐 세계 비정부기구(NGO)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벌였다.

부산의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지정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등 '영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 결과라는 분석. 부산시가 아시아권 영화인재

육성 등 그동안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활동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모든 영화 관련 활동과 사업에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산업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도시 간 교류활동에도 참여한다. 유네스코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관련 다양한 활동을 홍보할 수 있어,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또 시는 올 상반기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지정 선포식을 갖고, 기념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창의도시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부산의 영화산업·정책, 문화유산 등을 세계에 적극 소개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아시아 영화산업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 '자갈치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산수산정책포럼 개최

자갈치와 남항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정책 네트워크인 (사)부산수산정책포럼이 최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제6회 '부산수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자갈치의 현재 노후화되고 비위생적인 수산물 판매환경과 협소한 관광보행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영도 대교와 부산공동어시장, 용두산공원 등을 인근 수산·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자갈치 글로벌수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 시간에는 시 수산진흥과장이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에 대한 시의 추진 전략을 발표, 보행데크조성, 친수공간 조성, 도심형관광위판장 건설사업 등을 통해 자갈치와 남항 일대를 위생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진우 사무총장은 "자갈치 일원을 수산 중심지와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자갈치시장 옥상에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

부산의 명소이자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의 옥상 하늘 공원에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이 조성돼 고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자갈치시장 하늘공원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공개했다.

7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벽면에 방문객 호기심을 자극할 층훈탑, 태종대유원지 등 자갈치시장 주변 관광지 전경이 그려져있다.

옥상에는 해풍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60여 개, 방문자 누구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낙서 하트, 연인 또는 가족이 단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셀카봉, 포토존, 갈매기 우체통 등이 설치됐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하나인 갈매기를 주제로 사랑엽서를 작성해 갈매기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뒤 발송해준다.

## 이대호, 부산 관광경찰 홍보대사 남포동 BIFF광장 입구에 관광경찰센터 설치



▲ 이대호 선수가 부산 관광경찰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부산 출신 프로야구선수 이대호가 부산 관광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해 12월31일 중구 남포동 BIFF광장 입구에 '관광경찰대 남포센터' 문을 열고, 일본 프로야구선수로 활약 중인 이대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대호 선수는 향후 1년간 뛰어난 스포츠 스타로서의 명성과 친근한 이미지로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안전한 부산관광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

## 부산시 만디버스(가칭) 도입위한 검토 착수

서병수 부산시장은 "산복도로 순환 투어버스 개념의 만디버스가 부산의 관광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며 "관련 부서에 사업 추진을 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서 시장은 "도시재생은 지속적인 관심 분야이자 시정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산복도로 투어 노선을 직접 돌아보고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도 개최해서 만디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정해수욕장·청사포에 예술촌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부산 해운대구는 송정해수욕장과 청사포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예술인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가수 겸 화가인 최백호가 지난해 가을 청사포의 한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으며 송정해

수욕장에는 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이 문을 여는 '조영남의 갤러리 카페 조이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영남은 이 건물 2~3층에 자신의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고 지하 1층에서 소규모 공연을 할 예정이다. 또 청사포 일대는 소규모 공방을 마련, 시인, 화가, 공예가 등의 작품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여행자 면세초과 미신고 가산세율 40%로 인상돼

1월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 전국 세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 행정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 관련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종과되고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감감받을 수 있다.

## 지난해 크루즈 여행객 1인당 지출액 1천68달러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크루즈를 이용해 부산항·제주항·인천항·광양항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2천7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천68달러였다고 밝혔다. 올해 크루즈관광에서도 중국인의 씀씀이가 더욱 커진 반면 일본인들은 여행경비 지출을 줄였다. 중국인은 작년 한해 1천662달러로 82.2%, 일본인은 367달러에서 272달러로 25.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39%가 '화장품·향수'를 구입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쇼핑을 많이 한 품목은 기타식품(8.8%)이었고 김치 구매 비중은 8.2%였다. 기항지 쇼핑장소는 면세점(58.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전통시장(11.3%), 백화점(6.7%) 등의 순이다. 기항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6점이었다. 이는 작년보다 0.1점 높아진 것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비자취득·출입국 절차가 4.31점으로 가장 높았다. 불편사항(복수응답)으로는 '관광할 시간이 짧다'가 36.6%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가 흥미롭지 않다'(15.2%), '의사소통 불편'(9.7%) 등의 순이다.



## 안승균 총지배인에게 묻다.

### 특1급으로 승격 후 변화된 점?

특1급으로서의 승격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1급 승격 후 변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번째로 직원들이 특1급 승격 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높아졌으며, 고객님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두번째로는 고객님들께서 조금씩 저희 호텔이 특1급 호텔이라는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으며, 마지막 세번째로는 호텔 시설 및 객실, 부대입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방향으로 계획 중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 실천 가능한 전략을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코모도호텔 부산이 기존 호텔과의 차이점 (코모도만의 고유한 특징)?

코모도호텔 부산의 특징은 외관부터 느낄 수 있듯이 가장 한국적인 호텔 중 하나입니다. 층층마다 놓인 화려한 오색 단청을 간판으로, 한국민화를 소재로 본뜬 외벽과 연꽃무늬로 수놓은 천장과바닥 등 한국사의 서정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내벽의 벽들 한장 한장에도 전통 와당을 새겨 넣어 조선시대 왕궁을 복원한 듯 그대로 재현, 국내 유일의 한옥 건물로서의 자부심은 곧 코모도호텔의 강점이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전통과 현대식 호텔로서 경영전략?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의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진 코모도호텔만의 장점을 부각시켜 일본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G.M의 역할과 방안?

모든 임직원들이 단합과 협력을 통해 호텔 매출 신장에 기여 하는게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총지배인의 역할이 앞에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각 팀의 구성원들을 잘 서포트 하기 위해 뒤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 특1급 승격 후 호텔객실로 각종 식음료 인상 방안은?

특1급으로 승격됐지만 코모도호텔의 객실료와 각종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통해 특1급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김승오 BUSAN@COMODOHOTEL

## 코모도호텔 부산점 특1급 승격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의 고급스러움을 부각시켜 일본·중국·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총력 기우릴 것”

지하 3층 지상 17층의 웅장한 건물 내에 총 314개의 아늑한 객실을 비롯하여 연회장, 한식당을 포함한 레스토랑, 레저 스포츠 시설을 보유

### 코모도호텔 부산점이 특1급에 승격됨에 따라 구도심지역에 특1급이 들어서

코모도호텔(대표이사 이영숙) 부산점이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실시한 호텔 등급 심사에서 특1급(기존특2급)으로 승격했다.

코모도호텔이 특1급이 됨에 따라 롯데호텔부산, 부산웨스틴조선호텔, 파라다이스호텔부산, 파크하얏트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호텔농심부산, 노보텔엠베서더부산에 이어 코모도호텔 등 2산지역 특1급 호텔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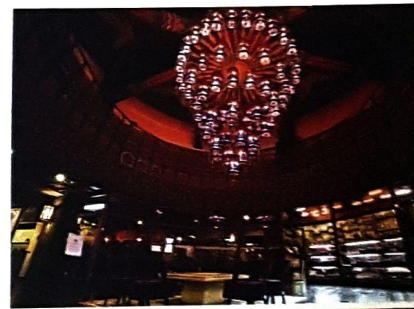
≈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코모도호텔 부산은 한국의 전통미와 모던함이 조화를 이룬 특급호텔이다. 1979년 7월 7일 개관, 조선시대 왕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지하 3층

지상 17층의 웅장한 건물 내에 총 314개의 아늑한 객실을 비롯하여 연회장, 한식당을 포함한 레스토랑, 레저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지역 8개 특급호텔중 5개 호텔이 해운대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동래, 서면에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에 코모도호텔 부산점이 특1급에 승격됨에 따라 구도심지역에 특1급이 들어서게 됐다. 조선시대 왕궁을 본떠 만들어진 코모도호텔은 지난 30년간 한국전통양식을 고수하면서 정기적인 개·보수로 전통미를 뽐내고 있다.

“최근 감천문화마을, 산복도로 이바구길 등 구도심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적인 정취를 품고 있는 우리호텔을 많이 찾고 있다”고 안승균 총지배인이 귀띔한다.

안승균 지배인은
경주조선호텔 / 사원 (1982년~1983년)
웨스틴 조선비치호텔 / 팀장 (1983년~1997년) 15년 근무
해운대 그랜드호텔 / 팀장 (1997년~2001년) 5년 근무
청원호텔 / 총지배인 (2001년~2014년) 14년 근무
코모도호텔 / 총지배인 (2014년~현재)
총지배인 자격증 획득 (1997년)
경주호텔학교 (1981년 졸업)
영산대학교 (2001년 졸업)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4년 졸업)



# 부산시티투어버스



## 부산시티투어 이용 안내

출발지 : 부산역광장 아리랑관광호텔(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8번출구, 기차-부산역 1번출구)  
 탑승요금 : 어른 10,000원 / 어린이 5,000원      인터넷예약 : [www.citytourbusan.com](http://www.citytourbusan.com)  
 운행안내 : 연중 운행, 월요일 휴무(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운행)      전화예약 : 051)464-9898 / ARS 1688-0098





## 부산의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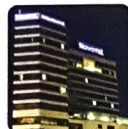
### 특급호텔



**부산롯데호텔**  
051)810-1000  
www.lottehotelbusan.com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총객실 650



**파라다이스호텔**  
051)742-2121  
www.busan.paradisehotel.co.kr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총객실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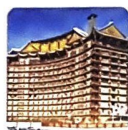
**노보텔엠베서더부산**  
051)743-1234  
www.novotelbusan.com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총객실 356



**해운대그랜드호텔**  
051)740-0114  
www.grandhotel.co.kr  
해운대구 마린시티 1로 17  
총객실 320



**신세계조선포털부산**  
051)749-7000  
www.echosunhotel.com  
해운대구 동백로 67  
총객실 290



**코모도호텔**  
051)466-9101  
www.commodore.co.kr  
중구 중구로 151  
총객실 314



**파크하얏트부산**  
051)990-1234  
busan.park.hyatt.com  
해운대구 마린시티 1로 51  
총객실 269



**호텔농심**  
051)550-2100  
www.hotelhongshim.com  
동래구 금강공원로 20번길 23  
총객실 240



**아쿠라펠리시호텔**  
051)756-0202  
www.aquapalace.co.kr  
수영구 광안해변로 225  
총객실 70



**호텔파라곤**  
051)328-2001  
www.hotelparagon.com  
사상구 광장로 46  
총객실 132



**호텔호메르스**  
051)750-8000  
www.homershotel.com  
수영구 광안해변로 217  
총객실 143



**이비스엠베서더부산**  
051)930-1100  
ibis.ambatel.com/busan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총객실 180

### 1급호텔

호텔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부산국제관광호텔	www.busanintl.com	동구 범일로 90번길 17	051)642-1330
부산관광호텔	www.busanhotel.co.kr	중구 광복로 97길 23	051)241-4301
피닉스호텔	www.phoenixhotel.com	중구 구덕로 54-1	051)245-8061
미라보호텔	www.mirabohotel.com	연제구 중앙대로 112	051)866-7400
들라망호텔	www.delamanghotel.com	사상구 범일로 713	051)310-8500
부산아리랑호텔	www.ariranghotel.com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8	051)463-5001
송정관광호텔	www.songjeonghotel.com	해운대구 송정대로 28	051)702-7766
호텔일우아	www.hotelilwua.com	해운대구 달맞이길 97	051)744-1331
호텔리베라해운대	www.liberahotel.com	해운대구 구감동22번길 2	051)740-2111
돈비치관광호텔	www.donbichotel.com	수영구 광안로 96	051)752-3210
동부산관광호텔	www.dongbusanhotel.com	기장군 기장읍 광안로 96	051)721-9331

### 리조트·콘도·유스호텔

호텔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한화리조트	www.hanwharesort.co.kr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52	051)749-5500
씨클라우드호텔	www.seacloudhotel.kr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7번길 1	051)933-4300
글로리콘도	www.glori.co.kr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43	051)746-8181
센텀호텔	www.centumhotel.com	해운대구 센텀3로 201	051)720-9000
대우월드마크콘도	www.dauworldmark.com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52	051)746-9342
팔레드마크콘도미니엄	www.paldecz.co.kr	해운대구 센텀3로 201	051)746-1010
부산유스호텔 아르나	www.arpana.co.kr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051)731-9800

## 문 / 화 / 체 / 험

# 부산의 독특한 문화체험과 자연을 소재로 한 이색체험 투어



### 부산박물관 역사체험실

이곳은 부산의 역사를 만져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역사체험실'. 탁본과 인쇄하기, 공포 조립과 석탑 쌓기 등을 통해 새로운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민속 놀이를 즐기면서 쉽고 재미있는 역사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

051-624-6341 / 부산남구 대연4동 838-4



### 기장도예관 도자기체험

문화와 자연이 숨쉬는 기장의 아름다운 도자기 체험. 기장에는 옛 가마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예부터 도자기를 구워왔다는 흔적이다. 지역 원료 등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자기 장인들이 기장지역을 대거 거쳐 갔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이 영향인지 기장에는 지금도 도요(陶窯)가 많다. 051-727-0161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2



### 금정산성 도자기체험

사람의 얼굴이 그릇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흠 범새가 난다. "이번 주말에는 물 할까?" 독서나 영화감상도 좋지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도자기체험을 해보는건 어떨까. 과일접시, 화분, 비누받침 등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 도자기의 종류는 많다. 051-518-0014 / 부산 금정구



### 토암도자기공원

자연과 벗삼아 흙을 만지고, 그 흙으로 도자기를 굽고, 야외 전시장에서 그림 감상도 할 수 있는 산속의 작은 문화공간이자 편안한 쉼터. 작고 아늑한 대변향 바로 위, 트램 서타원 선생이 마련한 숲 속의 문화쉼터 토암도자기공원이다. 공원에 들어서면 광파집 한 얼굴형에 찢어진 눈, 납작한 코, 결코 마담 미녀 얼굴은 아니지만 하나같이 합창하듯... 051-721-2231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산 521-1



### 소름요-도자기체험

신라 토성과 왜성 사이 구릉에 위치한 소름요는 윤선도의 유배지였던 충화대와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국수당이 내려다 보이는 기장 죽성리 최고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흙을 접할 수 없는 도시인들에게 소름요는 자연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 가는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051-722-0018



### 산성도예관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로에 있는 산성도예는 전통가마에 분청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도예전문 공방이다. 귀여운 토우들과 아기자기한 도자기가 마음에 온기를 전해주는 곳. 맑은 공기와 향긋한 차도 함께 마실 수 있어 일상의 번잡함을 떠나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기 좋은 도예방이다.

051-517-8376 / 부산 금정구 금성동 592-1

## 관광열차타고 정동진 해맞이, 태백눈꽃축제장 가다

동해바다가 품은

정동진, 모래시계 그리고

태백산 눈꽃축제장으로...

1박은 저리가라! 무박2일로 한국 해돋이 명소, 정동진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를 보러 가기 위해 부산역으로 갔다. 밤 11시24분, 부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사상역-구포역-밀양역-동대구-대구역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태우고 6시30분에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리고 한국 제일 해맞이 명소 정동진역에 도착한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강원도의 맛 황태탕으로 아침을 대충 해결하고 백사장을 가로질러 1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모래시계공원을 찾았다. 모래시계공원은 1994년 SBS드라마 모래시계 여자 주인공이 간이역사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촬영돼 그때부터 정동진역사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됐다고 한다.

공원에는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찍기 바쁘다. 일출시간은 7시40분경. 서울 등 각지에서 온 500여명의 관광객이 일출을 기다렸으나 야속하게도 수평선에 구름층이 높게 드리워져 1시간여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끝내 해돋이는 못보고 아쉬움을 남긴채 미리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타고 다음 코스 태백석탄박물관과 눈축제 준비가 한창인 태백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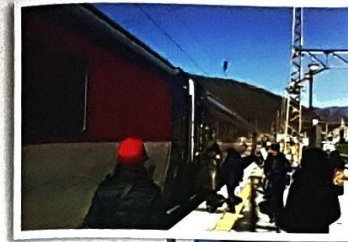
영하 8℃ 체감온도는 무려 15℃, 서둘러 석탄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석탄은 우리나라 유일할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국민생활 연료공급과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크게 기여해 왔으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그 간의 석탄산업 변천사를 한 곳에 모아 귀중한 역사자료 되도록 하고, 후세들에게 석탄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석탄박물관을 개관했다. 지질관, 석탄의 생성발견관, 채굴이용관, 광산안전관, 광산정책관, 광산생활관, 태백지역관, 체험광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을 나오면 해마다 겨울이면 하얀눈으로 뒤덮이는 태백산의 설경과 다채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눈축제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상설이벤트인 국제눈조각품 전시회, 눈사람페스티벌, 눈터널, 눈으로 만드는 각종 조각작품 만들기가 한창이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찍지 말란다. 그래도 몇컷 몰래 찍고 뒤돌아 섰다. 전시회는 23일 부터 2월 1일까지, 축제기간이 끝나도 관람할 수 있단다.

돌아올때는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을 지나 30분 거리에 있는 철암역에 도착했다. 철암역 앞쪽산은 시커먼 석탄산 그대로다. 철암역을 출발한 열차는 봉화-영주-예천-문경-상주-김천-대구를 거쳐 부산 도착 8시20분, 알토란 같은 무박2일 일정은 끝났다. 요금은 어른 95,800원 어린이 76,800원이다.

김우용 기자

협찬 :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삼성여행사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작정이면 어쩐가, 낚선 곳, 낚선 길 떠나는 것이!

바람도 구름도 머물다 흘러가는 곳, 청사포 靑沙浦 그곳에 가면...

### 동부산권 관광벨트 핵심이 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포구는 사색의 또다른 이름이다. 삶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을 때, 잠시 일상을 접고 생활의 활력을 찾고 싶을 때, 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문득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까마득해질 때, 척박한 삶의 무게가 무었이며 기다림으로 생을 탐진한다고 느낄 때, 그럴땐 포구를 찾아가 본다.

포구는 어부들의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들어오는 곳 만이 아니다. 포구는 삶의 시련과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서정적인 공간이기도 한 곳이 포구다.

이번에 찾은 '그곳에 가면...'은 난류와 한류가 섞이는 남쪽끝 남해의 동쪽끝에 있는 망부송의 슬픈전설이 깃든 청사포를 찾았다.

▼ 끝이 보이는 저편에서 걸길따라 10분쯤 가면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송정역사가 나온다. 요즘 이곳은 예비 신랑·신부들의 사진찍기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송정 백사장은 부산의 해수욕장 중 길이 가장 맑고 모래사장 또한 청동진 백사장 못지 않게 모래결이 좋다.



▲ 고기잡이 나간 남민배가 훑시나 들어오나 하고 아낙은 나무위에 올라가 저멀리 바다를 바라보면 소나무를 사람들은 망부송이라 부른다.

한국관광공사가 죽기전에 꼭 가봐야할 곳 101번째로 선정 해운대와 송정사이에는 3개의 포구가 있다. 해운대에서 동쪽으로 백사장이 끝나는 곳에 미포(尾浦), 미포에서 지금은 동해남부선 폐선이 된 철길을 따라 2km쯤 가면 청사포다. 여기서 또 2km 쯤 더 가면 구덕포, 그리고 드넓은 송정해수욕장의 눈부신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청사포는 3개의 포구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포구로 철로 위쪽에 새터(신기마을)마을이고, 아래쪽이 청사포로 불리운다.

청사포 주 진입도로 15년만에 우여곡절끝에 개통 총길이 942m, 폭 20m로 해운대 달맞이길 관광도로와 청사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1997년에 착공했으나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오랫동안 지연돼 오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 개통됐다. 이 도로 개통으로 주민들을 위한 환경조성 뿐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와 포구가 있는 어촌풍경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도로가 끝나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폐선이 된 동해남부선 철길이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중 해운대구 미포~송정 4.8km 구간에 대한 민

간투자사업 개발이 본격화 된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중 미포~송정 구간은 미포와 구덕포, 청사포로 이어지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해안절경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구간은 해운대에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로 이어지는 동부산권 관광벨트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동 송정역사 4천868㎡ 부지와 역사를 중심으로 좌우 철로 150m 구간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데다 해안절경을 끼고 있어 역사성과 환경 등을 어떻게 조화시켜 개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활용에 대해 부산시민 모임 등 주민들은 "성급한 개발은 오히려 경관을 망칠 수 있다"며 "폐선 부지 이용권은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모임 관계자는 "폐선 부지는 그 자체로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큰 고민 없이 레일바이크장으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 포구의 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 배 앞선이 간신히 고기잡이로 명맥을 잇고, 나머지 배는 낚시꾼들을 위해 빌려준다고 한다.

지지를 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최근 철도시설공단에서 미포~송정 구간 관리권을 이관받아 관리에 나선다. 구는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아 안전펜스, CCTV(폐쇄회로)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청사포 망부송의 전설  
철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15m높이에 수령이 300여년 된 소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있다. 옛날 이곳 청사포에는 정씨와 임씨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후 마을에 남은 아낙네와 가족들은 고기잡이 배들이 훑시나 돌아오지 못하니 걱정하면서 마을어귀에 있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고기잡이나간 남자들을 기다렸다고 전한다. 그 당시 같은 동네에 살다가 혼인한 정씨부부는 남달리 금실이 좋아 마을 주민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며 평생을 고기잡이로 생활하는 이들 부부는 지아비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 부인은 바위 위에 앉아 남편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씨 부인이 소나무 두그루를 심고 그 나무에 의지하여 바다를 바라 보았으나 수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 조그마한 포구에는 항간·현 등대 2개가 서 있는데 고기잡이 나갔던 배가 들어올 때 포구바위에 부딪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각각 2개씩 세웠다.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그러던 어느날 바닷물을 가르고 푸른 구렁이(용왕)가 여인 앞에 나타나 물길을 인도하여 남편과 상면케 되었으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었다는 전설에서 청사포(靑沙浦)라 했으며 원래 지명은 靑蛇浦로 모래(沙)자가 아닌 뱀(蛇)자 였다고 전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정씨부인이 바위 위에 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더 멀리 먼바다를 보기 위하여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혹시나 돌아오나 애절하게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기다리면서 죽어간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앉아 기다렸던 바위를 망부석이라하며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던 소나무를 망부송이라 부른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곳에 사당을 지어 외롭게 죽어간 부부의 혼을 위로하며 이 나무를 어촌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청송받는 부부를 지정하여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에서는 이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고 한다.

**청사포 풍어제(별신굿)**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청사포 풍어제가 지난 달 청사포마켓 일원에서 개최됐다. 별신굿이라고도 불리는 이 풍어제는 무형문화재인 별신굿의 전통을 되살리는 뜻 깊은 행사로써 무형문화제 13호 김상윤씨가 진행했다. 화려한 원색의 의상을 입은 무녀들이 시조신에 대한 가랑곳을 시작으로 생산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세존굿, 용왕신에

대한 용왕굿,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을 비는 성주굿 등 20여점의 굿판이 벌어져 이곳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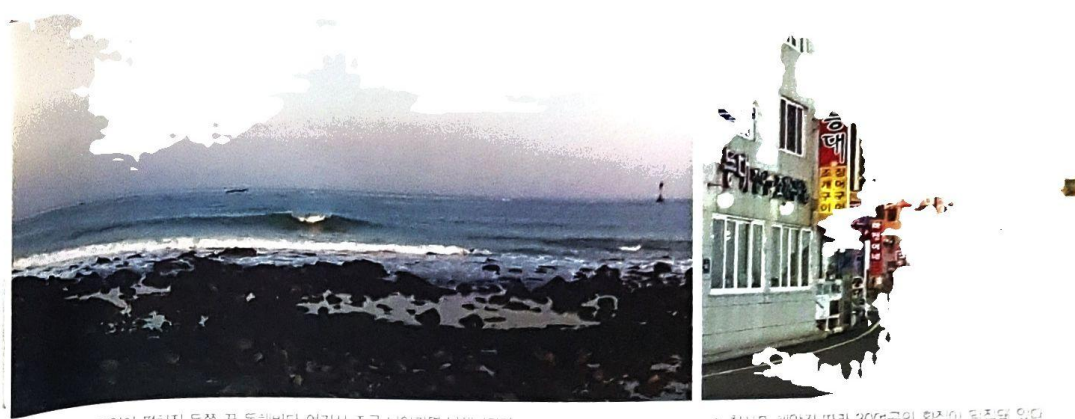
철길에서 왼쪽으로 꺾어들면 회센터 간판들이 즐비하다. 회센터 간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사포횰집, 청해조개구이, 갯내음, 갈매기조개구이, 동산횰집, 착한횰집 등 30여 횰집이 준비해 포구의 멋이 희석돼가고 있는 듯 해왓지 가슴이 먹먹해 진다.

포구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어쩌면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던것 처럼 말이다. 바다로 떨어지는 역광의 햇살이 눈부시다 못해 찬란한다. 햇살과 바다와 사랑, 아름다움이란 자연과의 조화를 빼면 무엇이 남겠는가?

횰집 중간쯤에 손(孫)공 장군비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 이 신(神)역은 옛날 걸신, 잠신들을 모시던 곳이었는데, 마을이 생기고 어느해 이 마을 앞바다를 향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여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시인이 파도에 밀려 이 신역에 당도하자 그를 걸신, 잠신의 우두머리로 삼아 손장군이라 칭하고 거릿대나무 옆에 화강암 비석을 새우게 됐다고 전해진다. 제의 날짜는 음력 1월 3일, 6월 3일, 10월 3일 자정이며 산신제, 분당제, 기릿대 장군제, 망부석제 순으로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벋고동 소리와 비린내 가득한 풍경이 점점 살아져가고 있는 포구, “그때는 고기만 자아도 아쉬움이 없이 살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어업을 포기하고 횰집을 운영하는가 하면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생계를 꾸려가

▼ 이 신역은 옛날 걸신·잠신들이 모이던 곳이었으나 어느날 바다에서 시신이 파도에 밀려 이 신역에 도달하자 마을사람들이 그를 손장군이라 부르고 제를 지내게 됐다고 한다.



▲ 끝없이 펼쳐진 동쪽 끝 동해바다 여기서 조금 나아가면 남해바다다.

▲ 청사포 해안길 따라 30여곳의 횰집이 즐집되어 있다

고 있다”고 이곳 주민 이동국(75) 할아버지는 말한다. 척박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그래도 해질녘 포구는 황홀하고 정말 아름답다. 아득한 전설인양 먼 나라로부터 밀려와 부딪치고 스러져가는 파도소리, 아름다움이란 저 자연의 조화를 빼면 무엇이 남겠는가. 외로워 보이는 빈배 돛대 끝에 얹은 갈매기는 무얼 생각하고 기다리는가. 기다림없는 생은 없는가. 오늘따라 포구에 앉아 기다림의 물새 한 마리를 눈여겨 보는 일이란 즐거움보다 기다림이라는 삶의 의미를 되짚게 한다.

기다림의 대답은 없어도 좋고, 기다림의 결과가 공허해도 좋다. 기다림이 없는 가슴은 이미 죽은 가슴이니까...

사계절을 담은 눈꽃빙수 코리아 디저트카페 설빙

그 새 어두어진 포구를 뒤로하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창 넓은 카페에 앉았다. 진한 원두커피향과 더불어 음악이 흐른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같은 앉잖아 내가 살  
은적일랑 남게뒤야지 / 한 줄기 연기처럼 가물었  
이 살아저도 / 빛나는 불꽃처럼 타 올라야지 / 문  
지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곳 까지 오르려 애  
쓰는지 묻지마라 /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  
을 / 야누이 없으면 또 어찌리...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 노랫말과 정경과 감정이 이처럼 일체가 되는 음악이 또 어디 있을까. 쾌적한 실내공기와 음악이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의 심신을 어루만지고 설레임으로 상기시킨다.

사계절을 담은 눈꽃빙수 코리아 디저트카페 설빙, 뜨거운 커피와 빙수를 한꺼번에 시키고 저 멀리 바다를 내려다 본다. 집어등을 켜 고기잡이 배들이 한 폭의 수선화를 연상시킨다. 아름다운 풍경, 그것조차 잊고 사는 현대인, 일상의 우리는 눈에만 보이는 제한된 장소에서 낯선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싶어한다. 그럴땐 시리도록 푸른 겨울바다 포구를 떠나자. 그곳엔 사색과 침묵과 그리움이 있는 곳이다.

김봉호 [busan@hanmail.net](mailto:busan@hanmail.net)



미포에서 폐선이된 동해남부선 해안선 중곡역과 그 주변을 걷거나 차가움으로는 단양이길에서 15분 내려가 다보면 다리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버스는 해운대전차국에서 20분마다 마포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장에게 바라는 부산의 관광정책



부산관광협회 부회장 상순\*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중심도시 마쓰에(松江)시의 관문인 이즈모(出雲)공항과 JR역 광장에는 "돌아오라 다케시마(竹島)섬과 바다"라고 적은 홍보탑이 우뚝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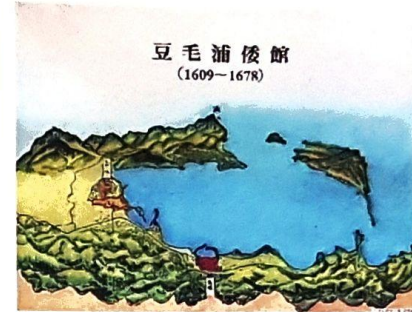
시마네현은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했다고 고시한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2006년부터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침략주의가 깔린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역사는 전형적인 역사왜곡의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리면서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국 간의 만남은 1952년 2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장장 14년 동안 술한 우여곡절을 겪었을 만큼 양국 수교관계는 미완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찾은 첫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부속 고등학교 3학년 생 59명이었다. 1972년 10월 6일 부관훼리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 부산, 광주를 거쳐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묵은후 나흘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2주 후 오미야고다이사(近江兄弟社)



▲ 1783년 번박(下坂)이 그린 초량왜관도



▲ 부산에 있었던 일본인 마을-초량왜관

부속고등학교생 98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고 일본 사립중고교와 공립학교들은 경주, 부여를 수학여행 최적지로 선정, 관광한국의 물꼬를 텃다. 재일본 조선거류민단을 시작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들 때 부산은 일본인 단체관광의 메카였다.

2012년 말부터 한, 일 외교갈등으로 시작된 反韓(반韓)감정의 확대대로 일본 관광객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

들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산의 관광정책은 1711년 제8차 조선통신사를 수행했던 현덕운(玄德潤)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아메노노리 호슈(雨森芳洲)가 이룬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시대를 되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아메노노리 호슈는 조선과 사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심을 다해야 한다."며 한·일 우호관계 개선을 부르짖었다.

조선이 당당하게 일본을 다스린 공간 초량 왜관은 되살려야 할 역사 관광 콘텐츠다. 초량왜관의 중심이었던 용두산 공원에는 왜관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머물렀던 관수가(館守家)가 남아 있다. 관수가는 초량왜관 150여동 건물 중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가 머무르기도 했었고 여가 행렬을 시작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순종황제가 걸었던 길은 광복로였다. 순종황제 어가행렬을 부산의 또 다른 볼거리로 만들어 초량왜관과 연계한 부산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부산초량왜관의 자료 전시관 최적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옛 부산유치원 터는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건립 예정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터야말로 부산초량왜관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다.

부산영화체험 박물관을 다른 곳에 짓도록 유도하고 그 터에 부산초량왜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동광초등학교 옛터 일부와 관수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조선과 일본의 상인들이 모여 교역을 했던 개시대청(開市大廳) 역사와 함께 세계 길거리 음식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길거리 음식 골목길이 만들어지면 가장 낙후된 부산의 원도심이 살아날 것이다. 부산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부산 원도심역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근대역사골목투어에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부산초량왜관 역사길 투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초량왜관설문(상해문)-청국이사부(추정: 화교학교)-초량객사(문래초등학교)-성신당과 빈일현(추정: 영주성당)-동향사(추정: 악산 인마방)-재판개추정: 타워호텔 앞-개시대청(동광동 외환은행 뒤쪽)-변재천선사(미타선원)-용두산타워로 이어지는 부산초량왜관 역사길 투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관광협회회장 이태섭



## 新의식문화 - 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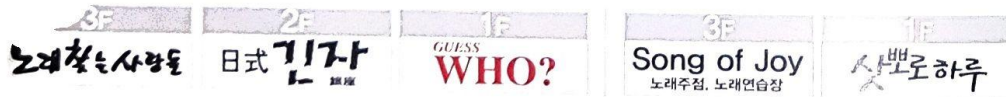
###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이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은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항상 50대 이상 주처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Rotary 2015 RI 국제대회 공식 지원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대회/6월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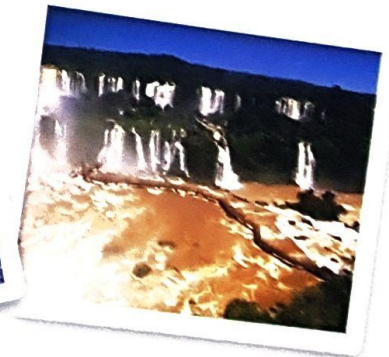
## (주)동방여행사 Oriental Tour Service Co., LTD.

Tel. 051) 466-7107 / Fax. 051) 442-0030  
 대표이사 서학영 (부산광역시관광협회 국외여행업 위원장)



- 상파울로 국제대회 지정업체
- 패키지 해외여행 알선 전문
- 인센티브 / 단체 연수상담
- 로타리 클럽 국제대회 행사경력

행사 년도	행사 일자	행사 내용
2010년	6월 07일 ~6월 27일	국제 로타리 제101차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대회
2013년	6월 21일 ~6월 28일	국제 로타리 제104차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대회





# 내 생애 최고의 여행!

##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1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361 KATA 02752-8692